

DEU-GRIT을 활용한 군집화된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학업, 사회, 정서 및 진로 적응) 특성 분석 연구: D 대학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Academic-, Social-, Emotional-, and Career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Clustered Freshmen Using DEU-GRIT: A Focus on D University

이정희¹ · 강창완² · 박애영³ · 고미나⁴ · 강정임⁵ · 신지영⁶ · 최서현⁷ · 이진현⁸ · 함수민⁹ · 김보성^{10*}
Jung-Hee Lee¹ · Chang-Wan Kang² · Ae-Young Park³ · Mi-Na Ko⁴ · Jung-Im Kang⁵ ·
Ji-Young Shin⁶ · Seo-Hyun Choi⁷ · Jin-Hyun Lee⁸ · Su-Min Ham⁹ · Boseong Kim^{10*}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freshmen of D University by utilizing the DEU-GRIT test. To achieve this, we examined differences in level of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major, and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college freshmen who were clustered based on their level of academic, social, emotional, and career adaptation,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adaptation to college life. Moreover, based on the DEU-GRIT test standards, we also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llege life adaptation by sorting out low level groups of freshmen with difficulties adapting.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male students had a higher level of emotional adaptation than female students, an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majors had higher levels of academic and emotional adaptation than students in the humanities and society majors. Furthermore, a cluster analysis based on 4 factor levels of college life adaptation showed that cluster 1 had a high level of adaptability to all factors, but cluster 3 had a low level of adaptability to all factors. Moreover, while cluster 2 showed a high level of emotional adaptation, cluster 4 showed a low level of emotional adaptation. On the other hand, a lower-standard group of DEU-GRIT tests showed that the level of academic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was higher among female students than among male students. However, the overall level of college life, academic, and emotional adaptation were higher among science and technology students than among those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In addition, a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level of 4 factors of college life adaptation of lower-standard groups showed that cluster 1 of the lower-standard groups had a high level of emotional adaptation, while cluster 2 of the lower-standard groups had a low level of emotional and career adaptation and a high level of academic and social adaptation. Also, cluster 3 of the lower-standard groups was found to have low levels of all factors, and cluster 4 of the lower-standard groups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2019학년도 DEU-GRIT 대학생활적응 특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축약한 것임.

¹ 이정희: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교수

² 강창완: 동의대학교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생산정보기술공학 전공 교수

³ 박애영: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⁴ 고미나: 동의대학교 철학인문교양학부 부교수

⁵ 강정임: 전)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조교수

⁶ 신지영: 전)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원

⁷ 최서현: 전)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원

⁸ 이진현: 전)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원

⁹ 함수민: 동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원

^{10*} (교신저자) 김보성: 동의대학교 철학인문교양학부 부교수 / E-mail: bkim@deu.ac.kr / TEL: 051-890-1290

showed low levels of social and emotional adaptation and high levels of academic and career adaptation. This indicates that, in terms of social and emotional adaptation among freshmen, participation in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tailored according to gender is necessary and, regarding the major, relative emotional intervention is required due to the high and low expectations of job prospects. In conclusion, the emotional and social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the lower-level groups is likely to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for college life adaptation, suggesting that specific intervention should be contemplated.

Key words: The Freshmen, Adaptation to College Life, Gender, The Field of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Cluster, Academic-Adaptation, Social-Adaptation, Emotional-Adaptation, Career-Adaptation

요약

본 연구는 D 대학을 중심으로 DEU-GRIT 검사를 활용하여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신입생의 성별과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 생활 적응의 중요한 영역인 학업, 사회, 정서, 진로 적응의 수준을 기반으로 군집화된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DEU-GRIT 검사 기준을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 중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하위 기준집단을 따로 분류하여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 적응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적응과 정서 적응 수준에서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생활 적응의 4개 영역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한 결과, 군집 1은 모든 영역의 적응 수준이 높았지만, 군집 3은 모든 영역의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집 2는 정서 적응 수준이 높았지만, 군집 4는 정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EU-GRIT 검사의 하위 기준집단에서는 학업 적응과 사회 적응 수준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높았으며, 대학 생활 적응 전체 및 학업 적응과 정서 적응 수준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보다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기준집단의 대학 생활 적응의 4개 영역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 한 결과, 하위 기준집단 군집 1은 정서 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하위 기준집단 군집 2는 정서 및 진로 적응 수준은 낮고 학업 및 사회 적응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기준집단 군집 3은 모든 영역 수준이 낮았으며, 하위 기준집단 군집 4는 사회 및 정서 적응 수준이 낮고 학업 및 진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신입생의 사회 및 정서 적응 측면에서 성별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며,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취업 전망에 대한 기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상대적 정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하위 기준집단의 대학 생활에서 정서 및 사회 적응은 대학 생활 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도 시사한다.

주제어: 대학 신입생, 대학 생활 적응, 성별, 전공 분야, 군집 특성, 학업 적응, 사회 적응, 정서 적응, 진로 적응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은 대학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대학생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정서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이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진로를 개척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하는 많은 발달과업을 대학 입학 이후로 미루어

두지만, 기대했던 바와 달리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과제들과 마주하게 된다(Lee & Ko, 2019; Lee, Kim, Kwon & Kim, 2020). 대학생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경험하면서 성공과 좌절을 통해 성장하게 되지만, 일부 대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휴학, 자퇴 등의 중도탈락을 하게 된다.

중도탈락은 학업중단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최근 일반휴학을 중도탈락으로 간주하여 중도탈락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So, 2015). 정부는 이러한 중도탈

락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위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를 연계한 Wee클래스, Wee센터 등을 구축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며, 이 문제는 오로지 대학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대학에서도 최근까지 학령인구가 대학입학정원보다 많았기 때문에, 중도탈락 대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중도탈락자는 장기결석자, 성적불량자 등으로 인식되어 학교에서도 중도탈락을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Son, 2009).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신입생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대학 생활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다(Hong, 2018). 대학 신입생은 중·고등학교 생활과는 다르게 학업의 양과 질, 학습방법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학업 적응의 어려움), 성인으로서는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어려움(사회 및 정서 적응의 어려움), 진로와 관련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자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움(진로 적응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Lee et al., 2018). 따라서 전환기의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학 생활 적응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학생들에 대한 대학 차원의 적절한 개입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관점(Lee et al., 2019; Byun, 2009, Park & Chong, 2007)과 여학생들이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다(Seon & Ha, 2013)는 상반된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전공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학생들이 낮은 대학 생활 적응도를 보인다는 결과(Seo & Kim, 2016; Shim, 2013)와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학생들이 오히려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다는 결과(Seon & Ha, 2013), 전공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Jeong, 2010; Oh, 2017)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 성별과 전공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 생활 적응의 중요한 영역인 학업, 사회, 정

서, 진로 적응의 수준을 기반으로 군집화된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을 따로 분류하여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업 적응

학업 적응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 학업에 대한 기대와 동기, 만족도, 학습자가 깨닫고 있는 학업성취 수준 및 태도, 확실한 목적의식 등이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Lee et al., 2018). 이러한 학업 적응은 학교생활에 있어 중요한 적응 변수 중 하나이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 이들의 학업 적응의 중요한 기준점은 주로 고등학생 시기의 학업성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서 지나치게 높다가 현실적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적정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대학 신입생들 역시도 고등학생 시기에 자신의 학업적 수준을 기반으로 대학 입학 초기의 학업 성취도와 비교하여 자신의 대학 생활 내 학업 적응을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ung(2017)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입학 전에 학습한 과학 과목 수준과 학업 적응의 관계가 유의미한 양적 관계가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방법과 더불어 교수 방법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으로 학업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적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강의 방법은 교수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학습자가 놓치지 않고 수용하여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평가 방법인 시험에서 적절하게 기술 및 설명하면 학업 수행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형태의 학업 만족을 거쳐 비교적 우수한 학업 적응 정도가 산출될 수 있었다. 이 시점의 우수

한 학업 적응 정도는 주로 높은 학점 유지라는 성과 중심의 적응 정도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컸다. 일부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측면으로 남녀 대학생의 학점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점 평균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Lee & Lim, 2011). 하지만, 팀 프로젝트 방식의 교수/학습 방법만 보더라도 팀으로 구성된 구성원들과의 조화 및 융합이 팀 프로젝트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과 적절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업 수행은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며, 결국 부정적인 형태의 학업 만족을 거쳐 학업 적응 정도가 낮게 산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는 학업 적응에 있어서 단순한 지식기반의 문제해결 수준이 아닌 대인관계에서의 적응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한편, 개인의 사회적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부정적 정서, 우울,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몇몇 연구들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Choi(2012)에 따르면 청소년의 친구 지지, 부정적 정서 경험과 우울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Goo와 Chung(2012)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로 자동적 사고를 거쳐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계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Park과 Bac(2012)는 학업 적응에 있어 중요한 성과로서 학교 성적을 종속변인으로 살펴본 분석에서 부모, 교사, 또래의 대인관계가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치되 남학생에 한해서는 또래의 대인관계가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Park과 Jeong(2014) 역시 학교 성적을 중요 변인으로 살펴보았는데,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적응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여학생들의 부정적 정서가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들은 오히려 대학 생활 가운데 대인관계의 적응 수준이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학업 적응은 개개인의 학문적 적응 수준과 더불어 사회적 적응 수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사회적 적응 수준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학업 적응의 중

요한 요소인 학문적인 적응, 즉 학업성취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은 분업화된 사회를 지향했던 현대사회에 발맞추어 세분된 전공에 특화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로 인해 각 전공에 가장 부합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주된 역량을 전공 중심으로 신장시키려는 교육 체계를 갖추는 절차들을 끊임없이 수정해 왔다. 따라서 개인적인 특성에서의 유형이 자연스레 대학 내에서는 전공 분야에 따른 차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전공 분야는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하여 대학 생활 적응의 하위 영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eo와 Kim(2016)에 따르면, 대학생의 전공을 인문사회 전공 분야, 자연 공학 전공 분야, 예체능 전공 분야, 의·간호 전공 분야로 구분해서 대학 생활 적응을 살펴보았을 때, 예체능 전공 분야가 높고 인문사회 전공 분야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학업 적응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들이 이성, 친구, 교수와의 관계 및 가치관 문제, 그리고 불명확한 장래 문제에 있어서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업 적응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2. 사회 적응

사회 적응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18).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은 청소년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과도기에 경험하는 사회 적응과정으로 학업성취, 대인관계 및 취업 준비 등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대학 내 수업 활동 및 과제 수행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사회의 경쟁적인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팀 프로젝트 형태의 과제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들 간에 좀 더 적극적인 상호교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Kang

& Park, 2018; Park, 2010).

그리고 사회 적응은 신입생이 경험하게 되는 학교생활 및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므로, 학교생활과 개인 관리 및 대학생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 동료, 선·후배와 같은 집단을 형성하고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며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적응은 대학 생활 적응 전반에 있어 중요한 적응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생활 적응 정도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사회 적응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 학교 내 대인관계 유능감, 가족관계 유능감의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 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로(Min, Han, Lee, Kim, & Kim, 2011) 대인관계 능력, 가족관계, 개인의 심리적 문제인 불안, 우울 등 정서 적응 및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다. 학교 내 대인관계 유능감은 대학생이 선·후배 및 교수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대인관계 유능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학 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족관계 유능감은 대학생이 가족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안정감,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대학 생활 적응에 밀접히 연결된 사회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eon과 Ha(2013)는 성별 및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평균 차이 검증을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이 높고, 전공 분야별로는 문과 이과 의학과 순이라고 제시하였다. 대학 생활 적응 검사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에서도 전체 결과와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다. Kim(2010)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사회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Kim(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적응의 차이에서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Cho(200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중 개인-정서적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Moon(2016)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사소통 능력과 정서표현이 높으나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Lee(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 적응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학 생활 적응 중 사회 적응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3. 정서 적응

정서 적응이란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성장시켜갈 수 있는 내적 상태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정서 안정성이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2018). 정서 적응이 높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이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회피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지지적인 정서조절양식이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고(Kim, 2006), 자기평가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대학 생활 적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1). 또한 Choi(2009)는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고 이해 및 관리하는 정서 지능이 원만한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Lee, Park, & Kim, 2016). 이처럼 대학 생활 적응에서 정서는 학생 개인의 내적 성장뿐 아니라 지지자원과 같은 내적 보호 요인으로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는 대학 신입생의 경우, 적극적인 역할의 변화 및 주변 환경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심리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정서 적응은 이후 대학 생활의 적응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 신입생들은 상급생보다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이 낮고 우울 또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1993; Kim, 2003; Bryde & Milburn, 1990; Chemers, Hu, & Garcia, 2001),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히 높고(Kwak, 2018),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아존중감 또한 낮아져(Lee, 2007)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적응도를 보이며, 대학 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에서도 남학생의 정서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yun, 2009; Park & Chong, 2007). Lee 등(2018)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 생활 적응과 정서 적응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서 남학생의 개인 정서 적응 수준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고(Park & Kim, 2016), Nam(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him(2013)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체능 전공 분야와 공학 전공 분야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문전공 분야와 사회전공 분야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Kim(2005)의 연구에서는 자연 전공 분야 학생들의 정서 적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Lee 등(2018)의 연구에서는 이공계열 전공 분야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전공 분야 학생보다 정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분야별 대학 생활 적응과 스트레스를 연구한 Seo와 Kim(2016)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예체능 전공 분야 학생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하여 정서 적응이 높고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전공 분야에 따른 분석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들도 있다(Jeong, 2010; Oh, 2017).

2.4. 진로 적응

직업의 대체와 같은 급격한 고용변화가 예견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는 진로에 대해 새롭게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에 열린 전국대학 진로 취업포럼에서 불확실성이 팽배한 미래 현장에 적절하게 대처할 기회를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진로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의 진로 적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Back & Lee, 2019).

진로 적응은 청년기의 긍정적인 진로발달과 진로 준비를 촉진하며, 진로 결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서(Hirschi, 2009), 현대의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예측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미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Hirschi, Herrmann, & Keller, 2015).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는 속성이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맥락 상황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구성이다(Noh, 2016).

진로 적응 측면에서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되는데, 그 이유는 교육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Sim & Yoo, 2018). 청소년기인 중·고등학교 시기에 대학 입학이 주된 목적으로 삼는 교육의 패턴이 체계를 갖춘 진로 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다(Youn & Lee, 2016). 또한, 전공 선택에 있어서도 대학 입학 성적에 맞추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진로 선택은 충분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진로는 큰 의미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비유될 수 있음에도 결국 대학 4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서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전체적 고민이 이루어지는 형상인 것이다(Youn & Lee, 2016). 이는 결국 대학생들 스스로 겪게 될 진로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진로 적응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진로 적응 수준이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을 비교해 본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학생이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직업 전환을 거쳐, 전환 후의 적응과 적응 후의 변화상황까지 잘 예측할 수 있다(Hirschi, 2009; Jeong 2014). 이와 같은 이유로 진로 적

응은 대학생 진로발달의 중심구인 및 성공적인 직업 전환지표의 중심역할이 되었다.

You, Hong과 Lee(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지각된 진로 장벽이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진로 장벽을 지각하는 데 있어 여학생들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때 이에 대한 원인을 내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남자에 비해 많음을 의미한다. 즉, 성별에 따라 진로 장벽에 대해 적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진로 적응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학기 D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총 2,886명이며, 연구 참가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었다. 다만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분석은 2,884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이들 중 남학생은 1,316명(45.6%)이었으며, 여학생은 1,568명(54.4%)이었다. 또한, 이들의 전공 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통계 분류에 따라,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이 1,369명(47.5%)이었으며,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이 1,515명(52.5%)이었다.

3.2. 측정 도구: DEU-GRIT 검사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2018)이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검사로 개발한 DEU-GRIT 검사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4개 영역과 11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체 신뢰도는 .954이며, 하위요인별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items configuration of DEU-GRIT scales

Factors & Sub-Factors	N	Cronbach's α
Academic-Adaptation	11	.872
Academic Self-Efficacy	6	.850
Academic Resilience	5	.813
Social-Adaptation	17	.896
Social Self-Efficacy	8	.890
Interpersonal Competence in School	5	.857
Competence of Family Relationships	4	.895
Emotional-Adaptation	18	.907
Self-Esteem	4	.823
Emotional Control	4	.753
Emotional Stability	10	.911
Career-Adaptation	19	.901
Career Identity	7	.892
Career Confidence	7	.882
Career Activities	5	.826
Total	65	.954

3.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2019년 1학기(3~6월)에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평균 비교 및 군집 분석이 시행되었다. 군집 분석은 비계보적 군집 분석인 k-평균 군집 분석(k-means clustering)방법을 활용하였다. k-평균 군집 분석이란 개체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하여 초기 군집을 형성한 후 군집 중심을 기준으로 재할당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군집 중심의 변화가 있게 되므로 다시 모든 개체를 재할당 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군집 중심의 변화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최종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 규모가 큰 경우 효율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DEU-GRIT 기준군집단의 수가 4인 점을 고려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이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4개 영역 중에서는 정서 적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개 하위요인 중에서는 학교 내 대인관계, 자아 존중감, 정서 조절능력과 정서 안정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사회적 자기효능감, 가족관계 유능감과 진로 활동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효과 크기(Cohen's d)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small: 0.2 이하)에서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88).

Table 2. The result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gender

Factors & Sub-Factors	M(SD)		t	Cohen's d
	Man (N=1,316)	Woman (N=1,568)		
Academic-Adaptation	50.06(10.5)	50.52(9.5)	-1.222	0.05
Academic Self-Efficacy	49.93(10.6)	50.18(9.5)	-.665	0.03
Academic Resilience	50.21(10.1)	50.79(9.4)	-1.584	0.06
Social-Adaptation	50.11(10.5)	50.42(9.3)	-.832	0.03
Social Self-Efficacy	49.59(10.7)	50.68(9.2)	-2.901**	0.12
Interpersonal Competence in School	50.65(10.2)	49.31(9.4)	3.664***	0.14
Competence of Family Relationships	50.07(9.6)	51.12(9.7)	-2.921**	0.11
Emotional-Adaptation	51.32(10.1)	49.47(9.8)	4.974***	0.19
Self-Esteem	50.64(10.3)	49.80(9.8)	2.244*	0.09
Emotional Control	51.13(10.2)	49.45(9.8)	4.486***	0.17
Emotional Stability	51.23(10.0)	49.52(9.8)	4.633***	0.17
Career-Adaptation	50.09(10.0)	50.61(9.7)	-1.423	0.05
Career Identity	49.82(10.4)	50.37(9.6)	-1.475	0.06
Career Confidence	50.71(9.8)	50.48(9.8)	.623	0.02
Career Activities	49.57(9.9)	50.58(9.5)	-2.782**	0.11
Total	50.58(10.3)	50.25(9.7)	.890	0.03

*p<.05, **p<.01, ***p<.001

4.2. 전공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4개 영역 중에서는 학업 적응과 정서 적응에서 과학기술 전공 분

야의 학생들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개 하위요인 중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탄력성, 정서 안정성은 과학기술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진로 활동에서는 반대로 인문사회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과학기술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효과 크기(Cohen's d)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small: 0.2 이하)에서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88).

Table 3. The result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major field

Factors & Sub-Factors	M(SD)		t	Cohen's d
	The Humanities (N=1,369)	Science & Technology (N=1,515)		
Academic-Adaptation	49.37(10.1)	51.16(9.7)	-4.847***	0.18
Academic Self-Efficacy	49.50(10.0)	50.57(10.0)	-2.875**	0.11
Academic Resilience	49.40(10.1)	51.55(9.3)	-5.969***	0.23
Social-Adaptation	50.47(9.9)	50.11(9.7)	.992	0.04
Social Self-Efficacy	50.45(10.0)	49.94(9.8)	1.358	0.05
Interpersonal Competence in School	50.11(9.8)	49.75(9.7)	1.006	0.04
Competence of Family Relationships	50.57(9.8)	50.71(9.6)	-.388	0.01
Emotional-Adaptation	49.85(10.3)	50.74(9.7)	-2.384*	0.09
Self-Esteem	49.90(10.4)	50.43(9.7)	-1.411	0.05
Emotional Control	49.94(10.5)	50.47(9.6)	-1.398	0.06
Emotional Stability	49.84(10.3)	50.71(9.6)	-2.334*	0.09
Career-Adaptation	50.60(10.0)	50.17(9.7)	1.173	0.04
Career Identity	49.80(10.1)	50.41(9.8)	-1.637	0.06
Career Confidence	50.91(9.8)	50.30(9.8)	1.676	0.06
Career Activities	50.59(9.8)	49.69(9.6)	2.473*	0.09
Total	50.17(10.2)	50.61(9.8)	-1.167	0.04

*p<.05, **p<.01, ***p<.001

4.3. 적응 영역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특성 분석

4.3.1. 군집 분석

대학 생활 적응 전체 점수를 기반으로 상대적 위치 (상: 71~100%, 중: 31~70%, 하: 11~30%, 최하: 0~10%)로 구분된 기준집단과 세부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구분한 집단과의 개연성 확인과 더불어 4개의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대학 신입생 전체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한 결과, Table 4와 같이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1은 4개 영역 수준이 모두가 높은 특성, 군집 2는 정서 적응 수준이 높은 특성, 군집 3은 모든 영역 수준이 낮은 특성, 군집 4는 정서 적응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Factors	M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Academic-Adaptation	61.08	48.01	39.03	52.88
Social-Adaptation	61.21	48.35	39.15	52.15
Emotional-Adaptation	60.53	54.94	40.14	44.68
Career-Adaptation	60.97	46.59	40.23	53.74
N	685	815	654	730

4.3.2. 교차 분석

먼저, 4개의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구분된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분포와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다음으로, 4개의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구분된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분포와 전공 분야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마지막으로, 4개의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구분된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분포와 Lee 등(2019)이 대학 생활 적응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제시한 DEU-GRIT 검사 기준집단(상: 71~100%, 중: 31~70%, 하: 11~30%, 최하: 0~10%)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5. The results of cross-tab analysis between cluster and gender

Gender	Source	Cluster				Total	$\chi^2(p)$
		1	2	3	4		
Man	N	333	387	307	289	1316	14.779** (.002)
	%	25.3	29.4	23.3	22.0	100	
	Expected Count	312.6	371.9	298.4	333.1	1316	
Woman	N	352	428	347	441	1568	
	%	22.4	27.3	22.1	28.1	100	
	Expected Count	372.4	443.1	355.6	396.9	1568	
Total	N	685	815	654	730	2884	
	%	23.8	28.3	22.7	25.3	100	
	Expected Count	685.0	815.0	654.0	730.0	2884	

** $p < .01$

Table 6. The results of cross-tab analysis between cluster and major field

Major Field	Source	Cluster				Total	$\chi^2(p)$
		1	2	3	4		
The Humanities	N	316	377	324	352	1369	2.262 (.520)
	%	23.1	27.5	23.7	25.7	100	
	Expected Count	325.2	386.9	310.4	346.5	1369	
Science & Technology	N	369	438	330	378	1515	
	%	24.4	28.9	21.8	25.0	100	
	Expected Count	359.8	428.1	343.6	383.5	1515	
Total	N	685	815	654	730	2884	
	%	23.8	28.3	22.7	25.3	100	
	Expected Count	685.0	815.0	654.0	730.0	2884	

Table 7. The results of cross-tab analysis between cluster and norm

Norm	Source	Cluster				Total	$\chi^2(p)$
		1	2	3	4		
Lowest	N	0	0	290	0	290	4039.386*** (.000)
	%	0	0	100	0	100	
	Expected Count	68.9	82.0	65.8	73.4	290	
Low	N	0	80	360	59	499	
	%	0	16.0	72.1	11.8	100	
	Expected Count	118.5	141.0	113.2	126.3	499	
Medium	N	1	629	4	539	1173	
	%	0.1	53.6	0.3	46.0	100	
	Expected Count	278.6	331.5	266.0	296.9	1173	
High	N	684	106	0	132	922	
	%	74.2	11.5	0	14.3	100	
	Expected Count	219.0	260.6	209.1	233.4	922	
Total	N	685	815	654	730	2884	
	%	23.8	28.3	22.7	25.3	100	
	Expected Count	685.0	815.0	654.0	730.0	2884	

*** $p < .001$

4.4. DEU-GRIT 검사 하위 표준집단(30% 이하)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 분석

4.4.1. 하위 표준집단의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수준 차이

대학 신입생 중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DEU-GRIT 검사 하위 표준집단의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수준 차이를 살펴보았다(Table 8).

Table 8. The result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gender of lower standard group

Factors & Sub-Factors	M(SD)		<i>t</i>	<i>Cohen's d</i>
	Man (N=366)	Woman (N=423)		
Academic-Adaptation	39.84(7.0)	40.92(7.0)	-2.156*	0.15
Academic Self-Efficacy	40.96(7.6)	41.99(7.9)	-1.874	0.13
Academic Resilience	41.37(8.3)	42.20(8.4)	-1.391	0.10
Social-Adaptation	39.58(7.0)	41.05(6.8)	-2.986**	0.22
Social Self-Efficacy	39.60(8.8)	42.68(8.1)	-5.099**	0.38
Interpersonal Competence in School	43.81(7.5)	42.63(7.5)	2.204*	0.16
Competence of Family Relationships	42.88(9.8)	44.21(10.2)	-1.856	0.13
Emotional-Adaptation	42.02(7.3)	39.72(7.1)	4.477***	0.32
Self-Esteem	41.18(8.2)	40.57(8.6)	1.025	0.07
Emotional Control	44.44(8.6)	42.69(8.4)	2.891**	0.21
Emotional Stability	43.95(8.0)	41.55(8.1)	4.163***	0.30
Career-Adaptation	40.15(5.8)	41.01(6.5)	-1.942	0.13
Career Identity	39.52(7.3)	41.04(7.2)	-2.938**	0.21
Career Confidence	42.35(6.6)	42.15(7.5)	.385	0.03
Career Activities	44.64(8.1)	45.52(8.6)	-1.479	0.10
Total	38.30(4.6)	38.38(4.8)	-.234	0.02

p*<.05, *p*<.01, ****p*<.001

그 결과,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개 영역 중 학업 적응과 사회 적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고, 정서 적응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정체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고, 학교 내 대

인관계, 정서 조절능력과 정서 안정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효과 크기(Cohen's *d*)를 고려할 때,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 적응, 정서 안정성은 중간수준(medium: 0.3~0.5)에서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낮은 수준(small: 0.2 이하)에서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88).

4.4.2. 하위 표준집단의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수준 차이

하위 표준집단의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수준 차이를 살펴보았다(Table 9). 그 결과,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서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he result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major field of lower standard group

Factors & Sub-Factors	M(SD)		<i>t</i>	<i>Cohen's d</i>
	The Humanities (N=380)	Science & Technology (N=409)		
Academic-Adaptation	39.49(6.8)	41.28(7.2)	-3.593***	0.25
Academic Self-Efficacy	41.25(7.5)	41.76(8.0)	-.918	0.06
Academic Resilience	40.34(8.4)	43.19(8.1)	-4.849***	0.35
Social-Adaptation	40.54(7.1)	40.21(6.7)	.662	0.05
Social Self-Efficacy	41.51(9.2)	41.01(8.0)	.818	0.06
Interpersonal Competence in School	43.07(7.5)	43.28(7.6)	-.393	0.03
Competence of Family Relationships	43.85(10.1)	43.36(9.9)	.688	0.05
Emotional-Adaptation	40.06(7.5)	41.45(7.0)	-2.685**	0.20
Self-Esteem	40.26(8.9)	41.40(7.9)	-1.908	0.14
Emotional Control	42.90(8.5)	44.07(8.5)	-1.937	0.14
Emotional Stability	42.08(8.4)	43.21(7.8)	-1.955	0.14
Career-Adaptation	40.67(6.4)	40.55(6.0)	.271	0.02
Career Identity	40.24(7.6)	40.43(7.0)	-.374	0.03
Career Confidence	42.59(7.3)	41.92(7.0)	1.327	0.10
Career Activities	44.96(8.5)	45.25(8.2)	-.495	0.04
Total	37.95(4.8)	38.70(4.6)	-2.227*	0.16

p*<.05, *p*<.01, ****p*<.001

또한, 4개 영역 중 학업 적응과 정서 적응에서도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개 하위요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학업 탄력성에서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효과 크기(Cohen's d)를 고려할 때, 학업 탄력성은 중간 수준(medium: 0.3~0.5)에서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낮은 수준(small: 0.2 이하)에서 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88).

4.4.3. 적응 영역에 따른 하위 표준집단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 분석: 군집 및 교차 분석

4개의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하위 표준집단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1은 정서 적응 수준이 높지만, 학업, 사회, 진로 적응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2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2는 정서 적응과 진로 적응 수준이 낮되 상대적으로 정서 적응 수준이 더 낮은 특성을 보이지만, 학업 적응과 사회 적응 수준은 높되 상대적으로 사회 적응 수준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3은 다른 군집들에 비해서 모든 적응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3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4는 사회 적응과 정서 적응 수준이 낮

지만, 학업 적응과 진로 적응 수준이 높되 상대적으로 진로 적응 수준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The results of cross-tab analysis between cluster of lower standard group and gender

Gender	Source	Cluster of Lower Standard Group				Total	$\chi^2(p)$
		1	2	3	4		
Man	N	123	75	102	66	366	16.993** (.001)
	%	33.6	20.5	27.9	18.0	100	
	Expected Count	103.0	94.2	95.1	73.8	366	
Woman	N	99	128	103	93	423	
	%	23.4	30.3	24.3	22.0	100	
	Expected Count	119.0	108.8	109.9	85.2	423	
Total	N	222	203	205	159	789	
	%	28.1	25.7	26.0	20.2	100	
	Expected Count	222.0	203.0	205.0	159.0	789	

**p<.01

Table 10.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of lower standard group

Factors	M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Academic-Adaptation	38.54	44.17	34.80	45.51
Social-Adaptation	39.84	47.69	34.72	39.05
Emotional-Adaptation	48.93	38.39	35.83	38.85
Career-Adaptation	38.30	41.40	36.85	47.68
N(789)	222	203	205	159

교차 분석 중, 하위 표준집단의 4개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구분된 군집 분포와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한 결과, Table 11과 같이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1에는 남학생의 분포 비율이,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2에는 여학생의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위 표준집단의 4개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구분된 군집 분포와 전공 분야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3에는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의 분포 비율이,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1에는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의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점수 기반 하위집단과 4개의 적응 영역 수준을 기반으로 구분된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분포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한 결과, Table 13과 같이 표준점수 기반 최하 집단은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3에 주로 분포해 있으며, 표준점수 기반 하위집단은 하위 표준집단의 군집 1에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The results of cross-tab analysis between cluster of lower standard group and major field

Major Field	Source	Cluster of Lower Standard Group				Total	$\chi^2(p)$
		1	2	3	4		
The Humanities	N	95	104	116	65	380	12.532** (.006)
	%	25.0	27.4	30.5	17.1	100	
	Expected Count	106.9	97.8	98.7	76.6	380	
Science & Technology	N	127	99	89	94	409	
	%	31.1	24.2	21.8	23.0	100	
	Expected Count	115.1	105.2	106.3	82.4	409	
Total	N	222	203	205	159	789	
	%	28.1	25.7	26.0	20.2	100	
	Expected Count	222.0	203.0	205.0	159.0	789	

** $p < .01$

Table 13. The results of cross-tab analysis between cluster of lower standard group and norm

Norm	Source	Cluster of Lower Standard Group				Total	$\chi^2(p)$
		1	2	3	4		
Lowest	N	40	30	204	16	290	471.763*** (.000)
	%	13.8	10.3	70.3	5.5	100	
	Expected Count	81.6	74.6	75.3	58.4	290	
Low	N	182	173	1	143	499	
	%	36.5	34.7	0.2	28.7	100	
	Expected Count	140.4	128.4	129.7	100.6	499	
Total	N	222	203	205	159	789	
	%	28.1	25.7	26.0	20.2	100	
	Expected Count	222.0	203.0	205.0	159.0	789	

*** $p < .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EU-GRIT 검사를 활용하여 군집화된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 성별과 전공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 생활 적응의 중요한 영역인 학업, 사회, 정서, 진로 적응의 수준을 기반으로 군집화된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중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을 따로 분류하여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 전체에서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영역은 정서 적응이고, 11개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 학교 내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정서 조절능력, 정서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 생활 적응 중 개인 정서 적응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여 적응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들(Park & Chong, 2007; Byun, 2009; Lee et al., 2018; Cho, 2000)과 남학생의 사회 적응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Byun, 2009)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심리 내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 불안정감과 심리적 불편감을 더 잘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한계를 가지는 것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사회적 상황에서의 지도력과 적극적인 역할을 더 기대하는 경향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Park, 2004).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이 가족관계 유능감과 진로 활동인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진로 장벽이 높다고 지각하기에 더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하고 가족을 자신의 지지자원으로 더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신입생 전체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영역은 학업 적응, 정서 적응으로 나타났고, 11개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업 탄력성, 정서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의 학생보다 정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Kim, 2005; Shim, 2013; Lee et al., 2018)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전공계열에 따른 분석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Jeong, 2010; Oh, 2017)과는 상반되어 전공 분야에 관한 세밀한 구분을 토대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들의 경우 취업 전망에 대한 높은 기대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갖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인문사회 전공 분야 학생이 과학기술 전공 분야 학생보다 진로 활동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취업 전망에 대한 낮은 기대가 적극적인 진로 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영역(학업 적응, 사회 적응, 정서 적응, 진로 적응)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한 결과,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1은 모든 영역의 적응 수준이 높았지만,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3은 모든 영역의 적응 수준이 낮았다. 한편,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2는 정서 적응 수준이 높았지만,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4는 정서 적응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군집을 성별과 전공 분야 각각으로 교차 분석한 결과, 군집과 성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지만, 군집과 전공 분야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U-GRIT 점수의 기준집단과의 교차 분석에서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1은 상 그룹의 비율이 높았고,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3은 최하와 하 그룹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 신입생 전체의 군집 2와 4는 최하 그룹은 없었고 중 그룹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단지 4개 영역(학업, 사회, 정서, 진로)의 대학 생활 적응 점수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분된 군집만으로도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과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생활 적응 문제로 중도탈락할 수 있는 학생들을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방안뿐 아니라, 꾸준히 대학 생활 적응 문제를 극복해가는 학생들에게 대학 차원의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중도탈락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대학 신입생 중 DEU-GRIT 표준 점수 기준 하위집단(하위 30%)의 성별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영역은 학업 적응, 사회 적응이고, 11개 하위 요인에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진로 정체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수업 중 학습활동인 필기하기와 동료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여학생이 더 집중한다는 연구 결과(Kim, Bae, & Lee, 2017)를 고려할 때, 하위 기준집단 여학생이 같은 집단의 남학생에 비해 학업에 적극적이면서 사회적 측면에서 관계 지향적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하위 기준집단 남학생이 같은 집단의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요인은 학교 내 대인관계, 정서 조절능력, 정서 안정성이며, 이는 대학 신입생 전체에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와도 같았다. 한편, 하위 기준집단의 전공 분야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전공 분야의 학생이 인문사회 전공 분야의 학생보다 유의하게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대학 신입생 전체에서 전공 분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와 같았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 기준집단뿐만 아니라 대학 신입생 전체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하위 기준집단의 대학 생활 적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영역(학업 적응, 사회 적응, 정서 적응, 진로 적응)으로 군집 분석을 한 결과,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1은 정서 적응이 높고 학업 적응, 사회 적응, 진로 적응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2는 정서 적응과 진로 적응이 낮고, 특히 정서 적응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은 학업 적응과 사회 적응이 높으며, 특히 사회 적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한편,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3은 다른 군집들 보다 모든 영역에서 낮은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4는 사회 적응과 정서 적응이 낮았으며, 학업 적응이 높고 상대적으로 진로 적응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군집을 성별과 전공 분야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성별 간, 전공 분야 간에 분포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DEU-GRIT 점수의 기준집단과도 교차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3은 최하 그룹의 비율이 높고, 적응 영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1, 2, 3의 경우에는 하 그룹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 기준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1은 정서적 안정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자기인식이 부족할 수 있고,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2는 관계의 안정성이 학업에서의 만족감으로 이어지지만, 주관적 자기 욕구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자기 준비에 대한 통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한편, 하위 기준집단의 군집 4는 대학 생활에서 보이는 결과로서 학업과 진로에 집중은 하지만, 이에 대한 자기 내적 또는 자기 외적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신입생의 성별에 따라 사회 적응, 정서 적응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개입 시 성별에 따라 맞춤형 개입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전공 분야에 따라 진로 활동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전공 특성을 이해한 생애 발달적 관점의 진로 로드맵과 전공 분야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진로 방향의 명료화가 되지 않은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 성별과 전공 분야 내 변산성이 큼에 따라 성별과 전공 분야에 따른 차이의 효과성이 낮은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 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또한, 군집 분석에서 중 그룹 학생들에 정서 적응의 높고 낮음이 대학 생활 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중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정서 적응 지원을 위한 개입을 마련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이 더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하위 기준집단의 대학 생활에서 정서 적응이나 사회 적응은 대학 생활 적응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개입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결과는 현재 D 대학 신입생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재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타 대학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도 제한점이 존재한다.

REFERENCES

- Baek, J. K., & Lee, J. K.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2), 79-98.
DOI: 10.32341/JCER.2019.06.32.2.79
- Bryde, J. F., & Milburn, C. M. (1990). Helping to make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In R. L. Emans (Ed.), *Understanding undergraduate education* (pp. 203-213). Vermillion, SD: University of South Dakota Press.
- Byun, K. H. (2009). *A study of the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for college students from local campus to adapt themselves to campus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Chungju,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2586297>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 Cho, S. J.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8424482>

- Choi, I. S. (2012).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ccording to sex: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 135-160.
- Choi, J. H. (2009).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585352>
- Goo, G. M. & Chung, H. H. (2012). Structural relations among adolescents' stress, automatic thought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a path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3), 1295-1314.
DOI: 10.15703/kjc.13.3.201206.1295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10.
- Hong, S. E. (2018). *A study on the first semester transition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Grounded theory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4734581>
- Jeong, E. I. (2014). Mediation of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and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 and college adapt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2), 1-21.
- Jeong, M. K.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adjust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2187373>
- Jung, I. S. (2017). Convergence research on the studying science subjects before entrance to nursing department, the scores of basic nursing sciences and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17-125.
DOI: 10.15207/JKCS.2017.8.9.117
- Kang, Y. S. & Park, J. Y. (2018). College bullying experie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1), 269-288.
DOI: 10.15703/kjc.19.1.201802.269
- Kim, E. Y. (1993). *A study 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socia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912586>
- Kim, H. S. (2006). *The 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in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006144>
- Kim, H. W.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0206744>
- Kim, K. 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Korea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990573>
- Kim, S. H., Bae, Y. N., & Lee, J. H. (2017).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learning process : Based on the surveys in K-colleg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547-557. DOI: 10.5762/KAIS.2017.18.6.547

- Kim, S. K. (2003).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 215-237.
- Kim, S. R.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9620607>
- Kwak, H. Y. (2018). Effect of parents' attachment and stress coping style on college adjustment and psychosocial stress(SF-PWI) of freshmen. *Asis-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4), 357-374. DOI: 10.21742/AJMAHS.2018.04.08
- Lee, J. H. (2007). *The effects of career path group counseling applying cognitive behavior theory for university freshmen: Focused 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of career path, and decision making for career p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0884995>
- Lee, J. H., & Ko, M. N. (2019).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ymptoms and colleg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ngth knowledge and strength us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1(2), 489-499. DOI: 10.13000/JFMSE.2019.4.31.2.489
- Lee, J. H., Yun, M. H., Ham, S. M., Kang, C. W., Kim, M. H., Ko, M. N., Kim, B., Kang, J. I., Lee, J. H., & Park, E. Y. (2019). A study on the norm development of the DEU-GRIT scale to help college students adapt to their university life with focus on the university of D.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0(3), 139-157.
- Lee, J. H., Yun, M. H., Kang, C. W., Ko, M. N., Kang, J. I., Lee, J. H., Cho, Y. J., Kim, M. H., & Kim, B.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feasibility study of DEU GRIT scale for successful college life adaptation: Focused on the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 983-1006.
- Lee, J. S. (2010).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adaptation to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967016>
- Lee, S. H., Park, S. Y., & Kim, Y. S. (2016). The difference in BMI, ego resilience and adaptation depending on emotional eating types.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9(3), 89-102. DOI: 10.14695/KJSOS.2016.19.3.89
- Lee, Y. C., Kim, N., Kwon, S. J., & Kim, B. (2020).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covert narcissism on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23(1), 103-112. DOI: 10.14695/KJSOS.2020.23.1.103
- Lee, Y. M. & Lim, J. Y. (2011). An investigation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university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7(4), 89-118. DOI: 10.35637/lehrd.2011.7.4.002
- Min, Y. K., Han, S. I., Lee, N., Kim, J. H., & Kim, B. (2011).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self-efficacy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in adult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1), 163-171.
- Moon, S. R. (2016).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997576>
- Nam, A. R. (2012). *The study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ndecision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 <http://www.riss.kr/link?id=T12828490>
- Noh, Y. S.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proactive personal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4067386>
- Oh, J. H. (2017). *The effects of career value and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4364264>
- Park, A. S., & Kim, H. K. (2016).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511-519. DOI: 10.5762/KAIS.2016.17.2.511
- Park, B. H., & Chong, Y. S. (2007).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 attachment and adjustment in colle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3), 45-57.
- Park, B. S., & Bae, S. W. (2012).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mong school adolescents: Comparison of gender and school typ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215-238.
- Park, E. M. (2001). *Relationship of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betwee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types and student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0208276>
- Park, H. S. (2004). *A study on the process of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a parental divorce: A grounded theory based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9780878>
- Park, S. Y. (2010). Debate education for constructivistic learning.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8, 75-98. DOI: 10.17939/hushss.2010..28.003
- Park, W. S., & Jeong, G. C. (2014). Effects of learning strategies, negative affect, and academic-social adapt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3), 490-499. DOI : 10.5392/JKCA.2014.14.03.490
- Seo, Y. S., & Kim, M. S.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ess perceptions, coping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students in different major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1), 525-535.
- Seon, H. Y., & Ha, C. S. (2013). The development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 at the middle level college of a provincial university.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4(1), 209-226. DOI: 10.18612/cnujes.2013.34.1.209
- Shim, H. R.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ors of students in different major fields and adaptations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105611>
- Sim, Y. J., & You, S. H. (2018).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s and Happenstance coping skill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8(2), 423-443. DOI: 10.21024/pnuedi.28.2.201806.423
- So, B. H. (2015). *A study on situations and causes of university college freshmen's withdraw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3701247>
- Son, C. S.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ropping of the College Students : Centered on the Students at Tongwon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yong University, Anseong,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1654712>

You, S. K., Hong, S. H., & Lee, A. R. (2006).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barriers and career-aspirations among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4), 837-852.

Youn, E. Y. & Lee, J. Y. (2016).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status: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Science*, 42(3), 191-213.

DOI: 10.15820/khjss.2016.42.3.008

원고접수: 2020.05.15

수정접수: 1차 2020.07.15

2차 2020.08.03

게재확정: 2020.08.05